

모든 이산화탄소(CO2)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철강회사



이 철강 회사는 슬래브 캐스터 기계에 재제조 베어링을 사용함으로써 매년 30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대형 철강 회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분의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용광로와 같은 눈에 띄는 배출원 외에도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SKF의 베어링 재제조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30톤의 이산화탄소(2) 연간 배출량.

슬래브 캐스터 장비 유지보수 비용 대폭 절감

슬래브 캐스터 기계에서 제철소 유지보수 담당자는 매년 약 2,000개의 베어링을 교체합니다. 하지만 교체품의 절반이 새 베어링이 아닌 재제조 베어링이기 때문에 제철소에서는 10톤의 강철을 재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낭비를 방지합니다. 62,000kWh의 에너지로 매년 약 30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제거합니다. 오버아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셈입니다.

몇 달이 아닌 몇 주 만에 배송

철강 회사는 경제적, 환경적 절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배송 시간을 대폭 단축 할 수 있습니다. 6시간이걸릴 수 있습니다.

새 베어링을 받는데 몇 달이 걸리는 반면, 재제조된 베어링은 단 6주 만에 배송 할 수 있습니다. 리드타임이 짧아지면 재고를 보유해야 하는 부품의 수가 줄어들어 제철소에 보관하는 베어링의 총 비용이 절감 됩니다.

재제조라고 해서 모두 재제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제조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모든 공급업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재 제조가 아닌 리퍼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어링을 검사하고 청소하는 리퍼비시는 완전히 새로운 베어링을 만드는 재제조 공정과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얼굴. 연구에 따르면 베어링의 50%가 실패합니다.

윤활 상태 불량과 오염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재제조 공정에서는 이러한 표면 결함을 기계적으로 제거하여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임박한 고장을 방지합니다.

친환경 금속 생산을 위한 한 걸음

중공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의 양을 줄이려면 방지 할 수 있는 모든 톤이 중요합니다. 이 철강 회사는 생산의 주요 유지 보수 집약적인 부분에 재제조 베어링을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SKF의 재제조 서비스는 비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모두 줄여줍니다.

skf.com

© SKF는 SKF 그룹의 등록 상표입니다.

© SKF Group 2025

본 간행물의 내용은 출판사의 저작권이며 사전 서면 없이는 복제(발행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본 간행물에 포함된 정보의 보장하기 위해 모든 주의를 기울였으나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간접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PUB 71/S6 19172 Kr · 2025년 3월

Shutterstock.com의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된 특정 이미지